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이어 내달 6만5천ha 절대농지 해제

## 전남 농민 단체 “난개발 우려” 반발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지침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한 것에 이은 조치로, 식량안보를 위한 절대 농지 확보에 역행하는 농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만5천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 해제된다.

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있

는 농지를 내년 7월에 설치될 농지은행에 공공용지으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매수후 개발시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연녹지와 계획 관리지역은 각각 7만ha와 40만ha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리지역 중 생산과 보전지역을 제외한 계획지역을 공공개발용지로 풀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연말에 국회에 제출예정인 농지법 개정안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자유전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농지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농지규모가 173만ha에

년 2만여ha가 자연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47만ha에 이르는 농지를 개발 가능용지로 풀어주는 것은 자칫 식량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 다.

농업계 연구기관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필요한 농지규모를 150만ha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국제적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낮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라며 농지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경지면적은 2006년 31만6천200ha에서 2007년 31만3천400ha로, 2천800ha 줄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中企 정책자금

### 1천억 추가 지원

#### 홍석우 중기청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덜고자 회생 특례자금으로 400억원, 원부자재자금으로 600억원 등 모두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긴급 지방중 소기업청장 회의를 갖고 “지난달부터 지원한 회생특례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긴급 지원자금 조성을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또한 “내년도 시설자금에 대한 신청을 오늘부터 받을 계획이며 또한 이번에 추가 조성된 원부자재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내년도 분을 연이어 신청받겠다”며 “시설자금은 통상 신청에서 집행까지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면 내년 1월이면 신청기준에 자금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완도군이 13일 광주 롯데아울렛 앞 광장에서 광어 무료시식회를 갖고 있다. 완도군은 양식어민들을 돋기 위해 광주·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특산품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서울·광주·부산서 완도 수산물 대대적 판촉

완도군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민들을 돋기 위해 대도시에서 수산물 판촉활동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광주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광

어 먹을거리 장터’를 열고 우수 특산

품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13~16일에는 광주 롯데마트와 아울렛 월드컵 점을 비롯해 서울 목동 4단지에서 ‘광어 & LOVE 완도 농수산물 큰잔치’ 행사를 일환으로 소

비촉진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완

도산 광어 홍보와 무료 시식회, 특산

품 판촉활동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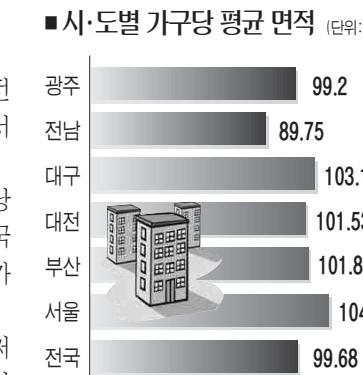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ejchung@

## 전남 도민 가장 ‘작은 집’서 산다

89㎡로 전국 최하위… 광주 동구는 광주·전남서 가장 커

### 부동산 써브 조사



의 순이었다.

전국의 경우 서울의 평균 ‘집 크기’가 104.25m<sup>2</sup>(31.54평)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가구당 평균 면적이 89.75m<sup>2</sup>(27.15평)로, 전국 시·도 가운데 집이 가장 좁았다.

시·군별로는 담양이 112.68m<sup>2</sup>(34.09평)로 가장 넓었고, ▲무안 109.62m<sup>2</sup>(33.16평) ▲보성 105.79m<sup>2</sup>(32평) ▲고흥 99.17m<sup>2</sup>(30평) ▲강진 98.81m<sup>2</sup>(29.89평) 등의 순이었다.

광양은 평균 면적이 72.77m<sup>2</sup>(22.01평)에 그쳐 ‘집 크기’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아파트 613만1천453가구에 대한 가구당 평균 면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소비자가 디자인한 쏘울 나온다

### 기아차 ‘나만의 쏘울 만들기 콘테스트’

소비자가 디자인한 쏘울(SOUL)이 나온다.

기아자동차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나만의 쏘울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고, 신개념 CUV 쏘울의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공개 모집한다.

콘테스트에 참여하려면 ▲직접 제작한 쏘울 내·외장 드레스업(Dress-up) 아이템을 적용한 실제 쏘울 차량사진이나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쏘울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의 그림과 설계자료를 공모전 기간 동안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 등록하면 된다.

수상자는 다음달 23일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이나 각각 주어지며, 콘테스트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영화예매권 2매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주)오성유니버설 탈모 예방 ‘참빗한방샴푸’ 출시

(주)오성유니버설(대표 오한선)은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한방분야의 탈모 예방 샴푸인 ‘참빗한방샴푸’를 출시했다. ‘참빗한방샴푸’는 하수오·석창포·백금 등 10여가지 천연한약재를 저온농축방식으로 추출해 모발 및 모근에 대한 영양 공급 효과를 높였다.

저온농축방식은 한약재가 갖고 있는 유효성분의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생약성분을 통한 탈모예방 효과가 크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오성(www.mienmart.com)은 미



응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02년 창립 이후 네일케어 제품과 마스크팩 등을 국내 유수의 화장품 회사에 공급하는 한편,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허용석 관세청장 내광

허용석 관세청장이 14일 광주를 방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광주 구청 첨단산단에 암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산업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허 청장은 광주 세관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장 회의를 주재,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 단속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